

(주)서울사료가 추천한 믿음농장

“젊음과 패기로 고급육 생산에 이바지 할 것”

» (취재 _ 현시영)

50, 60대의 나이에든 시골에서 청년 대접을 받는 요즘. 스물 일곱의 젊은이가 자신감과 똘똘똘친 열정 하나로 한우사육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기자가 달려간 곳은 경북 안동. 보수적인 양반 고장에서 축산농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믿음농장 남창수(27세) 사장을 만났다.

서울사료 영남지역본부 김기옥 부장과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 다부져 보이는 남창수씨 곁에는 안동한우번식회 회장인 박무언씨와 이경호씨가 함께 있었다.

안동한우번식회는 질 좋은 고급육을 생산하자는 취지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뭉쳐 만든 단체다. 남창수 사장이 이 단체의 회원으로 있다.

믿음농장의 우사는 지은 지 2년밖에 안되어 새 것처럼 깨끗했다. 우사마다 보송보송한 왕겨가 깔려있고, 차곡차곡 쌓여있는 벧짚과 티모시는

소들이 언제나 자유채식 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우사를 찍으려고 소 곁에 다가가니 소들이 놀라거나 멈칫하지도 않고 너무 순하다. 남창수 사장은 가축은 주인을 닮는 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젊잖게 웃는다.

남창수 사장은 안동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취재 중에는 질문에만 대답할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는 경상도 사나이 특유의 무뚝뚝함이 배어 나왔다.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가 하시던 농장을 새로 신축해서 지은 후 농장경영에 손을 댄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간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배테랑이라고 할 만한 정도로 인공수정 실력이 출중하고 그 동안 쌓은 사양 노하우도 수준급이다.

인터뷰 중에도 잠이 날 때마다 소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모습이 어지간히 꼼꼼하지 않다.



▲ (왼쪽부터) 김기욱 부장, 이경호씨, 남창수씨, 박무언씨

“제가 졸업한 대학이 3년제인데 2년 동안은 실습위주예요. 1년 동안 천두를 넘게 사육하는 농장에서 있으면서 많이 보고 배웠죠.”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경영을 해 보니 배울 때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었다. 때문에 틈틈이 번식회 사람들과 어려운 점을 의논하며 서로의 기술과 정보를 교환한다.

남창수 씨는 2004년에 미국의 농장으로 연수를 다녀온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한 농장에서 12만두가 넘게 소를 방목해 사육하는데 환경적으로도 최상의 조건에다가 TMR 사육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단가가 비싸 잘 먹이지 못하는 건초의 경우 마음껏 자유채식을 할 수 있으니 소에게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을까?

남창수 사장은 그때 ‘앞으로 미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은 사육두수가 많아 질병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우리나라처럼 고급육 문화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

했다.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FTA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고, 앞으로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의 차별화를 위해 맛과 품질 면에서 뛰어나도록 개량해야 한다는 게 남창수 사장의 생각이다.

서울사료 김기욱 부장은 고급육 생산에 있어 조사료의 중요성과 TMR사양법을 강조했다.

“소는 반추위가 급격히 발달하는 어린시기에 좋은 조사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추위가 잘 발달하고 후기 때 배합사료 섭취량이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등급출현율도 높아지고요. 하지만 아직도 옛날방식을 고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TMR사양을 하면 성적이 잘 나올텐데...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거래한지 6개월 정도 되다보니, 농장에 자주 들러 컨설팅도 열심히다. 남창수 사장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 김 부장은 믿음농장이 사육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앞으로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농장이라고 전했다.

“자신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은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었다. 남창수 사장이 앞으로 젊은 축산인의 성공사례가 되길 바란다. ⑤



▲ 뽕송뽕송, 폭신한 왕겨위에서 소들은 행복하다.



▲ 송아지들의 반추위를 발달하게 해줄 신선한 조사료.